

일라이저 - 넘버 쓰리

이에 알립니다

Jeff Pippenger

2023-09-29

저녁 제사를 드리는 때가 되었을 즈음에 예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나아가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이스라엘에서 주께서 하나님이심과 내가 주의 종이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음을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8:36.

우리는 엘리야를 하나의 상징으로 보고 그 특징들을 살펴보아 왔다.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엘리야와 세레 요한, 그리고 윌리엄 밀러의 사역과 메시지가 심판의 도구였다는 점이다. 그들의 메시지는 주님께 의해 그들의 각 시대를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오지 않으셨다면,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오지 않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죄를 가릴 핑계가 없다. 요한복음 15:22.

에스겔은 자신의 기록 속에서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에게도 같은 원칙을 지적한다.

그들은 뻔뻔한 자녀들이며 마음이 완고하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므로),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2:4, 5.

엘리야의 상징성에는 그가 심판의 도구로서의 역할이 포함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종사하는 이들은 밀러가 채택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Views of the Prophecies and Prophetic Chronology'라는 제목의 소책자에서 밀러는 성경 연구와 해석을 위한 단순하지만 합리적이고 중요한 다음과 같은 규칙들을 제시한다:

'1. 성경이 제시하는 주제에 대해 모든 단어는 그에 합당한 관련과 의미를 가져야 한다; 2. 모든 성경은 필요하며, 부지런한 적용과 연구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3. 성경에 계시된 것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구하는 자들에게 숨겨질 수 없고, 숨겨지지도 않는다; 4. 교리를 이해하려면 알고자 하는 주제에 관한 모든 성경 말씀을 함께 모으고, 그런 다음 모든 단어가 그에 합당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라; 그리고 모순 없이 당신의 이론을 세울 수 있다면, 당신은 틀릴 수 없다; 5. 성경은 그 자체가 규범이므로, 그 해석자는 성경 자신이어야 한다. 내가 어떤 교사에게 의존해 설명을 듣는데, 그가 그 의미를 추측하거나, 자기 종파의 신조에 맞추고자 하거나, 지혜롭다고 여겨지려 한다면, 그의 추측, 욕망, 신조, 또는 지혜가 나의 규범이 되고, 성경이 아니다.'

위의 내용은 이러한 규칙들의 일부에 불과하며,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 모두가 제시된 원칙들을 유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 위에 세워지지만, 사탄은 성경을 왜곡하여 오류를 들여오기 위해 온갖 계략을 쓰므로,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기 원한다면 큰 주의가 필요하다. 이 시대의 큰 미혹 가운데 하나는 감정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 말씀이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가르침을 무시하면서도 자신이 정직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 외에는 믿음의 기초가 없다. 그들의 종교는 흥분에 의존해 있으며, 그것이 사라지면 그들의 믿음도 사라진다. 감정은 쪽정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이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하듯, '쪽정이 알곡에게 무엇이냐?'"

그들이 결코 가진 적도 없고 얻을 수도 없었던 빛과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아무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사자들이 그들에게 제시하는 진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그들의 깨달음에 이른 진리, 그 영혼 속에 비친 빛이 심판에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 마지막 날들에 우리는 모든 시대를 통해 비쳐 온 누적된 빛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거룩의 길은 세상과 같은 수준에 있지 않다; 그것은 높이 올려진 길이다.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주의 계명의 길을 달려간다면,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과 같아서, 완전한 날에 이를 때까지 점점 더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4년 11월 25일.

우리는 결코 가진 적도 없었고 얻을 수도 없었던 빛과 지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죄되지 않는다. 이 진술에서 중요한 부분은 '얻을 수도 없었다'는 표현이다. 엘리야, 요한, 밀러는 각자의 세대에서 얻을 수 있었던 빛을 대표한다. 그들의 메시지가 존재함으로써 미국에서 법률적으로 'plausible deniability'라고 불리는 것의 외피가 벗겨졌다. 엘리야의 메시지는 그것이 나타나는 모든 세대에서 어떠한 'plausible deniability'도 제거하여, 그때 제시되는 빛에 대해 그 세대 전체가 책임을 지게 한다.

내 형제는 우리가 믿는 교리에 관해 어떤 것도 듣지 않겠다고 한때 말했는데, 혹 설득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모임에도 오지 않았고, 설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자신이 그것들을 들었더라면 다름없이 똑같이 죄가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리를 알 기회를 주셨고, 그분은 그 기회에 대해 그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었다. 우리 가운데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교리들에 대해 편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그들은 와서 들으려 하지도 않고, 차분히 조사하려 하지도 않으면서, 은밀히 자기들의 반대를 내세운다. 그들은 자기 입장에 완전히 만족해 있다.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서 네가 부요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며,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17-19).

이 성경 말씀은 기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에 살면서도 그것을 들으려 오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됩니다. 혹 주께서 자신의 진리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을 주시고 그것을 새로운 맥락에 두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새 빛이 스며들도록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빛을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자기만족과 자아중심과 의견의 교만은 버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발 앞에 나아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랍비들이 그들의 제자들을 가르친 것처럼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실 때 와서 들었지만, 그들은 배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편견을 심을 거리를 얻고자, 그분에게서 어떤 모순이라도 붙잡으려고 비판하러 온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지식에 만족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불화의 위험, 논쟁되는 쟁점에서 편을 가르는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 위하여 영혼을 낮추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택된 기별, 1권, 413.

엘리야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이들은, 언약의 사자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도록 길을 예비하는 정결의 과정에서 심판의 도구가 된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이루는 가운데 현재의 진리의 빛이 드러난다. 만일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과거에도 지금도 정결하게 하려 하시는 이들은 자기기만이라는 라오디게아의 겉옷을 그대로 걸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엘리야는 진리를 심판의 도구로 제시하는 사역을 상징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절한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없었다고 알려져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초림 선포로 다시 주목하게 되었다. 요한은 예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요한의 증언을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으로부터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다." Early Writings, 258.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심을 예표하는 예언적 역사들 속에서, 그 세대에게 어둠을 택할지 빛을 택할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현대 진리의 메시지의 봉인이 풀린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이 책을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왕래하리니 지식이 더하리라... 그는 이르되, 다니엘아, 네 길로 가라. 이 말들은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지고 봉함되었느니라.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고 연단을 받을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들 가운데는 깨닫는 자가 없고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다니엘 12:4, 9, 10.

각 세대마다 엘리야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 자신의 사신으로 지목하신 사람들이다. 이것이 엘리야가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이심과, 내가 주의 종임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음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며 밝힌 바이다.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에 관하여 이 진리를 밝히셨다.

그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하였으니, 그가 곧 이 사람이다. 마태복음 11:7-10.

요한은 선지자 이상의 존재였고, 심판의 도구였다. 그의 사역은 그의 세대에 분명히 각인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이는 아합의 명령에 온 이스라엘이 갈멜산으로 모였던 것만큼이나 확실했다. 윌리엄 밀러는 1798년에 봉인이 풀려 드러난 지식의 증가를 이해했다. 그는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살이 더듬으며 분주히 오가던 이들을 대표했다. 그의 메시지는 예언적 시간에 근거했고, 1840년에 그의 메시지와 사역은 그의 방법론이 과연 통하는지 개신교 세계 전체가 지켜볼 정도로 그의 세대 속에 자리매김되었다. 그것이 확인되자, 그의 메시지는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1840년에 또 하나의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널리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보다 2년 앞서, 재림을 전파하던 저명한 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요시아 리치가 요한계시록 9장에 대한 해설서를 출판하여 오스만 제국의 몰락을 예언하였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이 권세는 1840년 8월 11일에... 콘스탄티노플에서의 오스만 권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 그때에 전복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로 판명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정해진 바로 그때에 터키는 자국 대사들을 통해 유럽의 연합 열강의 보호를 수락했고, 이로써 스스로를 기독교 국가들의 통제 아래 두었다. 이 사건은 그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밀러와 그의 동료들이 채택한 예언 해석 원리가 옳다는 데 확신을 갖게 되었고, 재림 운동은 놀라운 추진력을 얻었다. 학식과 지위를 갖춘 이들이 설교와 그의 견해를 출판하는 일 모두에서 밀러와 연합했으며, 1840년부터 1844년까지 그 일은 급속히 확장되었다. 대논쟁, 334, 335.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기간은 요한계시록 10장의 '일곱 우레'의 역사를 나타낸다. 그 역사 속에서 말라기 3장과 그리스도의 두 차례 성전 정결 사건으로 표상된 정결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 정결 과정은 밀러의 '하루는 곧 일 년' 원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시험 과정이었다. 엘리야의 기별을 대표하는 자들은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도록 길을 예비하며,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택하는 자들을 쓸어내기 위해 언약의 사자가 사용하는 심판의 도구를 상징한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11, 12.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잃으셨다. 요한복음의 이 구절을 다루는 *The Desire of Ages*에서는 예언 적용의 방법론이 바로 제자들이 떠난 이유였다고 밝힌다. 그들은 문자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상징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고, 사도 바울에 따르면 문자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앞선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것이 아니요 자연에 속한 것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5:45, 46.

의지가 없었고 따라서 능력도 없었던 유대인들은, 자신이 먹어야 할 하늘의 떡임을 밝히신 그리스도를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관습과 전통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신 방법을 압도했다. 이 역사에 관하여 화잇 여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공개적인 책망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더욱 멀어졌다. 그들은 크게 불쾌해져, 구주께 상처를 주고 바리새인들의 악의를 만족시키고자 그분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분을 멸시하며 떠났다. 그들은 이미 선택을 내렸고, 영은 없는 형식을, 알맹이는 없는 껍질을 취했다. 그들의 결정은 그 후로 결코 번복되지 않았으니,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깨끗이 하시고, 자기의 알곡을 곳간에 모으실 것이다." 마태복음 3:12. 이것은 정결케 하시는 때들 가운데 하나였다.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겨가 알곡에서 분리되고 있었다. 책망을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게 허영적이고 자기 의에 차 있으며, 겸손의 삶을 받아들이기에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에게서 돌아섰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오늘날 영혼들도 가벼나움 회당에 있던 그 제자들처럼 시험을 받는다. 진리가 마음 깊숙이 다가올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음을 본다. 자신들에게 전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본다. 그러나 그들은 자아를 부인하는 일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 죄가 드러나면 분노한다. 그들은 실족하여 떠나간다.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수군거리며 예수를 떠났던 것처럼. *The Desire of Ages*, 392.

레위의 자손들을 불로 정결하게 하는 이는 말라기가 말한 언약의 사자이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그는 키로 이 일을 한다. 그 분리를 이루는 것은 바로 그 키이며, 그 키는 그가 레위의 자손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각 시대의 현재의 진리의 메시지이다. 그 키는 엘리야의 메시지와 사자들이며, 그들은 심판의 도구를 상징한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이르리라.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그의 오시는 날을 누가 견디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는 제련하는 자의 불 같고, 빨래하는 자의 잿물 같으니, 그가 은을 제련하고 정결하게 하는 자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여, 금과 은 같이 그들을 정련하고, 그들로 의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게 하리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과 이전의 해들과 같이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 말라기 3:1-4.

세레 요한 뒤에 오시는 이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요,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은 분이요. 그 정결의 과정은 언약의 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러므로 주께서 새로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역사를 가리킨다. 고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때, 그 거룩한 역사에서 하나의 주제는 '장자' 문제였다. 곧 이집트의 장자들의 죽음이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로 삼으심이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내 장자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네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곧 네 장자를 죽이리라. 출애굽기 4:22, 23.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각 지파의 모든 장자를 제사장 직분에 헌신하도록 구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 때 일어난 반역에서 모세의 편에 선 것은 레위 지파뿐이었다. 그들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장자를 제사장 직분에 바치려 하셨던 계획을 폐지하시고, 다른 지파들은 제쳐두시며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 직분의 권한을 주셨다. 언약의 사자가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할 때에는, 이전 언약 백성이 물러나고 새로운 언약 백성이 세워지는 역사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는 세레 요한과 밀러파의 경우에 그러했으며, 14만 4천의 경우에도 그러할 것이다. 1840년부터 1844년까지 윌리엄 밀러에게 주어진 예언적 기별이 시험의 쟁점이 되면서 정결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1844년 10월 22일 주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는 일로 이어졌으나, 그 정결의 과정은 1863년까지 끝나지 않았다.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 '이천삼백 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와 첫째 천사의 메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사역,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킨 것이었으며,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다. 잘못된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천삼백 일이 끝날 때 일어날 사건에 있었다. 이 오류로 인해 신자들은 실망을 겪었지만, 예언으로 예고된 모든 것과 그들이 성경에 근거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이루어졌다. 그들이 소망이 좌절된 것을 한탄하던 바로 그때, 그 기별이 예고했고 주께서 나타나 그의 종들에게 상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그 사건이 일어났다.

그들이 기대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표에서 미리 보여 준 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오신 것이었다. 그분은 선지자 다니엘에 의해 이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오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내가 밤의 환상 중에 보았는데, 보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땅으로가 아니라—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아갔고, 그들이 그를 그 앞에 가까이 인도하였다.' 다니엘 7:13.

이 오심은 말라기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하였다: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의 말씀이니라." 말라기 3:1. 주께서 그의 성전에 임하신 것은 그의 백성에게 갑작스럽고 뜻밖의 일이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분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이 "불타는 불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며" 이 땅에 오실 것이라 기대했다. 데살로니가후서 1:8.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그들의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준비의 사역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로 향하게 하는 빛이 주어져야 했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그들의 대제사장을 따라갈 때 새로운 의무가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교회에는 또 다른 경고와 교훈의 기별이 주어져야 했다.

선지자는 말한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으니, 그는 은을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는 자로 앉아서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 같이 그들을 정련하여, 그들이 의로움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게 하리라." 말라기 3:2, 3.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가 그칠 때 지상에 살아 있는 자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며, 그들의 품성은 뿌린 피로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들의 부지런한 노력으로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제거되는 동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정결하게 하는 특별한 사업, 곧 죄를 버리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메시지들에서 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그의 나타나심을 맞을 준비가 될 것이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물이 옛날과 옛 세월처럼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말라기 3:4. 그러면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친히 자기에게로 받으실 교회는 '점이나 주름이나 그러한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다. 에베소서 5:27. 그때에 그 교회는 '아침같이 나타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으며, 깃발을 든 군대같이 두려운'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아가 6:10.

주께서 그의 성전에 오시는 것 외에도, 말라기는 또한 그의 재림, 곧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한 그분의 오심을 다음과 같이 예언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러 가까이 나아가리니, 점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품꾼의 삯을 억누르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의 권리를 굽게 하며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내가 신속한 증인이 되리라." 말라기 3:5. 유다는 이렇게 말하면서 같은 장면을 가리킨다. "보라, 주께서 그의 성도들 수만 명과 함께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시고, 그들 가운데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을 그들의 모든 불경건한 행실에 대하여 책망하시려 하신다." 유다서 14, 15. 이 오심은 주께서 그의 성전에 오시는 것과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사건이다.

다니엘 8장 1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일, 다니엘 7장 13절에 제시된 인자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신 일, 그리고 말라기가 예언한 주께서 그의 성전에 임하신 일은 모두 동일한 사건을 묘사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 묘사하신, 혼인 잔치에 신랑이 오는 것으로도 상징된다. 대쟁투, 424-426.

마지막 단락에서는 네 가지 '오심'이 언급되며, 이것들은 모두 같은 오심을 네 가지 다른 방식으로 상징한다. 그 '오심' 가운데 하나는 열 처녀의 비유다.

나는 종종, 그중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였던, 열 처녀의 비유를 상기하게 된다. 이 비유는 이 시대에 특별한 적용이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이미 성취되었으며, 세상의 끝이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현재의 진리로 남을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8월 19일.

만일 네 가지 "오심"이 "같은 사건을 묘사한 것"이라면, 재림주의의 시작이었던 밀러주의 운동에서 성취되었던 그 네 가지 "오심"은 재림주의의 끝에 있는 엘리야 운동에서 다시 "글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윌리엄 밀러와 밀러파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대표자였으며, 우리가 최근에 인용한 '초기문집'의 같은 구절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침례 요한과 동일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유익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구절을 인용했다. 다음 문단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로부터 유익을 받을 수 없었고, 또한 밤중 소리로부터도 유익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윌리엄 밀러와 침례 요한은 모두 심판의 도구를 대표한다.

그들 둘 다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각자의 세대는 빛을 거절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두 사자를 사용하여 라오디게아의 죄의 겹옷을 벗겨 내시고, 받아들여든 거부하든 심판에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사용될 메시지를 제시함으로써, 한때 선택받은 백성의 라오디게아적 벌거벗음을 드러내셨다.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역사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물 위로 불이 내려온 사건으로 예표되었다. 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과 구별되었다.

이제 우리는 1844년 10월 22일 이후 계속된 정결의 과정을 개요로 제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화이트 자매는 1844년 10월 22일 이후 "사람들은 아직 그들의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준비의 일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도록 이끄는 빛이 주어져야 했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그들의 대제사장을 따라갈 때 새로운 의무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교회에는 경고와 교훈의 또 다른 메시지가 주어져야 했다."라고 말했다.

재림주의자들이 다니엘이 모세의 "맹세"라고 부른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거부했을 때, 그들은 정결의 과정이 심판의 개시와 관련된 진리를 이해하는 그들의 초기 작업을 넘어 계속되었음을 인식하는 능력을 잃었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계속되는 정화 과정을 다루고, 1840년대에 밀러주의 재림운동이 받은 참된 개신교의 뿌를 공화주의의 뿌와 일치시키기 시작할 것이다.